

디펜딩 챔피언 KIA, 상승세 이어가나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살아난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가 최하위로 처져있는 키움 히어로즈와 만난다. KIA는 24~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과 3연전을 펼친다. 최근 6연승을 질주하며 반등에 성공한 KIA는 키움을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통합 우승의 영광을 누린 KIA는 지난 겨울 전력 유출이 크지 않아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혔다. 필승조로 뛰던 장현식이 프리에이전트(FA)가 돼 LG 트윈스로 떠났지만, 트레이드로 조상우를 영입하면서 공백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핵심 선수들이 돌아가며 부상으로 이탈해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다.

2024시즌 통합 우승을 견인한 최우수

최근 6연승 달리며 반등 24~26일 키움과 3연전

선수(MVP) 김도영의 이탈이 가장 뼈아팠다. 3월22일 개막전에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친 김도영은 약한 달 만에 돌아왔지만, 또 같은 부위 부상이 재발해 5월28일 또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중심 타자 나성범, 주전 2루수 김선빈도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KIA 타선의 무게감은 크게 떨어졌다.

투수진에서도 필승조 원순 투수 곽도규, 우완 황동하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상황이다.

제 전력을 가동하지 못한 KIA는 5월 말 8위까지 처지는 등 개막 이후 두

달 동안 하위권을 맴돌았다.

하지만 6월 들어 치른 18경기에서 12승 1무 5패를 수확하며 기세를 한껏 끌어올렸다. 월간 승률 1위다.

최근 상승세는 더욱 매서웠다. 지난 14일 창원 NC 다이노스전부터 22일 인천 SSG 랜더스전까지 7경기에서 6승 1무를 기록, 6연승을 내달렸다.

어느덧 KIA는 4위(38승 2무 33패)로 올라섰다. 3위 롯데 자이언츠(41승 3무 31패)와 불과 2.5경기 차고, 선두 한화 이글스(43승 1무 29패)와도 4.5경기 차 밖에 나지 않는다.

주축 선수들의 빈 자리를 메우는 '잇몸'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영탁이다. 2024년 입단한 성영탁은 올해 5월20일 KT 위즈전에서 1군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후 13경기에서 17%이닝을 무실

점으로 들어막았다.

성영탁은 1989년 조계현이 작성한 종전 데뷔 후 연속 이닝 무실점 기록인 13%이닝을 넘어섰다.

선발진에서는 외국인 원투펀치 제임스 네일, 아담 윌러가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가운데 김도현이 한층 안정감 있는 투구를 펼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도현은 6월 3경기에서 1승 무패 평균자책점 1.98으로 패투를 선보였다.

타선 쪽에서는 오선우, 김호령 등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주전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을 노리는 KIA는 주말에는 까다로운 상대인 LG를 만나야 한다. 키움과의 3연전에서 최대한 승수를 벌여야 한다. 올 시즌 KIA는 키움을 상대로 5승 1무 3패를 거뒀다.



진안군 일원에서 지난 21부터 22일까지 펼쳐진 '2025년 진안홍삼배 전북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진안군청 제공>

테니스 동호인들 진안서 열전

진안홍삼배 전북자치도 동호인 대회 성료

진안군 일원에서 지난 21부터 22일까지 펼쳐진 '2025년 진안홍삼배 전북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테니스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북자치도내 400여명의 테니스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진안군 다목적테니스장 등 6개 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는 여자 2점 페어부, 남자 2점 페어부, 남자 12점 페어부 총 3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또한 경기 내내 뛰어난 기량과 강한 투지를 보여줬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스포츠맨십으로 대회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대회 결과 △여자 2점부에서는

권희수(무소속)·김민지(남원하이텐션) 선수, △남자 2점부에서는 구자범(익산한샘)·박경택(익산모현), △남자 12점부에서는 정우영(고창일요)·최은복(전주완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개최지인 진안군 진안클럽에서 출전한 배순진 선수와 장현진 선수가 남자 2점 페어부에서 공동 3위에 입상하며 선전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안이 동호인 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장 이수경 빙상연맹 회장 내정돼

한국 올림픽 역사상 첫 여성 선수단장이 탄생했다. 이수경 빙상경기연맹 회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장으로 내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3일 "국내의 체육 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제 심판으로서의 역량, 스포츠계 리더십, 다양한 현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수경 빙상연맹 회장을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동·하계를 통틀어 올림픽에서 여성이 한국 선수단장을 맡는 것은 이 회장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으로, 다수 국내 대회와 전국 동계체전에서 임했다.

선수 은퇴 후에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데이터 오퍼레이터와 국제심판, 대한빙상경기연맹 심판·이사, 서울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빙상연맹 임원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팀 리더를 맡기도 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6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전 세계 90여개국에서 약 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종목에서 열전을 벌인다.

/뉴시스



WTT 류블라나 혼복 결승 치르는 임종훈과 신유빈

한국올림픽유산협회 정식 출범

한국올림픽유산협회가 '올림픽의 날'을 맞아 정식 출범했다.

한국올림픽유산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올림픽 가치(정정당당·페어

임종훈(왼쪽)과 신유빈이 22일(현지 시간)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에서 열린 2025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텐더 류블라나 2025 혼합복식 결승전에서 우고 칼데라노-브루노 다카하시 조(21위·브라질)와 경기하고 있다. 세계 랭킹 5위인 임종훈-신유빈 조가 3-0(12-10 11-7 11-7)으로 완승하고 정상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제공>

플레이·배려·결과승복·포용·평화)의 사회 전반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올림픽 정신 되살리기 운동, 올림픽 정신의 재해석과 적용, 사회 통합을 위한 가치 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출진할 예정이다.

초대 회장으로는 조현재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가 추대됐다.

조 회장은 "한국올림픽유산협회는 앞으로 올림픽과 수많은 종합 국제대회가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승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김제 태권도, 전국대회 '승전보'

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대회서 개인전 銀 1·銅 1개 획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전남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제23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또 한 번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메달은 개인전 62kg에 출전한 채지는 선수가 은메달을, 46kg에 출전한 김경란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제시청 태권도팀은 올해 상반기 출전한 5개 대회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단체전 포함)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하반기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출전하는 대회마다 입상해 김제시 위상을 드높여주

서 고맙다"며 "앞으로 남은 대회도 좋은 성적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태권도팀은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리는 제55회 협회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그리고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어 김제시의 체육 위상 강화와 함께 지역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